성도의 교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쉴만한물가 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려집니다(레위기 강해).

5.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6. 요한복음 **20 장 31 절** (2024 년 4 월 성경 암송 구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 쉴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 쉴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쉴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제 3 – 15 호 **2024.4.14**

새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쉴 만 한 물 가 교 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부활 후 두번째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5 장 (통 25)**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32. 시편 71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나의 영혼이 / 하나님은 우리의**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50 장 (통 71)**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스겔(Ezekiel) 17:1-10; 22-24 (p. 1173)**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the Lord God

*찬 송 Hymn	**540 장 (통 219)**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노트 |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독수리 비유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의 느브갓넷살 왕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의 왕 바로 느고 왕
레바논의 백향목의 새 싹: 여호야긴 왕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 왕
포도나무: 남 유다

(겔 17:17)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 주지 못하리라

(겔 17:20)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겔 17:21)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 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겔 17:2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겔 17: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겔 17: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목회와 삶 | 허수아비의 꿈

미국 시애틀(Seattle)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가 허수아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부의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주도 집회에 가면서 허수아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려 찬양 집회를 가던 중 논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았는데, 허수아비의 머리와 어깨 위에 참새들이 앉아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새들도 학습 능력이 생겨서 허수아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논에 설치되어져 있는 깡통을 흔들기 시작하자 새들이 날기 시작했답니다. 친구 목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허수아비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농부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이지만 농부의 간섭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해 주시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허수아비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새들이 자신의 어깨와 머리 위에 앉아 곡식을 먹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허수아비에게도 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새 떼를 쫓기 위해서 혼자 가을 들녘에 서 있지만 허수아비는 가을 들녘에서 이삭들이 노랗게 익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들로부터 곡식을 지켜내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수많은 밤과 낮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가을의 작열한 태양볕 가운데에서도, 거세게 불어닥치는 가을 태풍에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누구도 곁에 두지 못하고 홀로 서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곡식의 수확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모습도 허수아비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섬김의 종으로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 가기 위함입니다. 비록 허수아비와 같이 허름한 옷을 입어서 볼품없어 보이고,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고 해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처럼 꿈을 꾸어 봅니다. 복음의 씨앗이 좋은 옥토 위에 떨어져서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 놓고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는 것입니다. 때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전 9: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